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요즘같은 불황에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금실이라며 성클리닉을 찾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병원을 찾는 주부들의 고민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취재 이영인기자, 박영라, 사진 홍기, 디자인 노호정〉

청담마리산부인과 성건강센터 유외숙 상담실장(심리치료학 박사) 1988년부터 성상담을 해온 전문가. 그녀는 요즘 부부들이 가장 큰 문제는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다보니 부부간 오해가 생기고 끄끄끄 않다 결국 외도를 생각하게 된다고.

“성적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외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남자도 외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시로 아내의 눈치를 봐야하니 여간 신경이 쓰이지않는다더군요. 그도 아내 외만 섹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섹스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파트너도 좋아할 것이다. 혹시 파트너가 비웃지는 않을까, 요구를 거절하면 어쩌나 싶어 용기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섹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성적인 문제가 관한 한 파트너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드러운 어휘를 선택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파트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주저 없이 행해야 합니다. 들어준다고 해놓고 자꾸 머뭇거리면 파트너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과거 섹스는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게 사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 또한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남성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내가 이상하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의심한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의 성 심리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

“남편은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어 섹스에 무관심하다며 고민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섹스는 10대에는 공포의 대상이고, 20대에는 호기심, 30대에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40대부터는 즐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적 지루함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유외숙 실장. 성적 지루함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한데 파트너가 섹스의 즐거움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참 괜찮은 부부’라는 신뢰감을 가져야 하며 또 노력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솔직하게 대화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